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장용현 이사장 신년사

지난 한 해 동안 섬유기계업계와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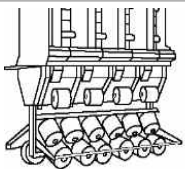
우리는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불안과 우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수출 중심의 섬유기계 업계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코로나 극복, 기후변화 대처, 디지털 전환 등 업계에서 앞장서서 풀어야 할 난제들을 해결하고, 섬유기계업계의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는 노력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은 최근 화두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스마트제조혁신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분야 연구개발 아이템 개발을 통한 기업과의 연구 확충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섬유기계산업 분야가 마주한 어려움에 대응방안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도전하는 마음으로 서로 힘을 합쳐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이사장 장용현

<출처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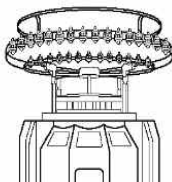


KOTMA 한국섬유기계협회 회원가입 안내

담당 : 조성환 상무이사

문의 : 053-817-5954

대상 : 섬유기계 및 관련부품 제조사



한국섬유기계협회와 경북테크노파크 간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섬유기계협회(회장 손종규)와 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는 2022년 1월 19일(수)에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세미나실에서 「섬유기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개발도상국 민간기업의 수요(공정효율화, 품질향상, 기술도입 등)를 파악하고, 맞춤형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설계·지원하며, 기술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 관련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제품 홍보를 통해 판로개척 지원활동을 연계·추진하는 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업무협약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섬유기계 관련 기관 보유 인프라 및 자원 교류, ② 정부 및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 ③ 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활동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④ 그 밖의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관한 상호협력 및 지원이다. 협약식에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하인성 원장, 신현욱 기업지원단장 외 5명이, 우리 협회에서는 손종규 회장을 비롯한 최병기 명예회장, 이규건 부회장, 조승형 이사, 안태영 감사가 참석하여 두 기관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업무협약 체결 기념사진

전시회 소식

■ PID 2022 섬유기계 공동관 참가업체 모집

한국섬유기계협회는 대구 EXCO에서 개최되는 2022년도 대구국제섬유박람회 (2022.03.02 ~ 2022.03.04 /PREVIEW IN DAEGU 2022) 에 섬유기계 공동관 구성을 위하여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섬유기계 공동관은 30개 부스, 약 270㎡의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올해 개최 20회를 맞이하는 PID 2022는 지속가능한 섬유의 미래가치 및 뉴노멀 시대를 슬로건으로 하여, 원사, 직물, 기능성·친환경 소재, 패션의류, 섬유기계 등 섬유 산업 전반의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신소재·친환경 특별관,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통한 화상 상담회, 20회 개최 기념 특별 이벤트 등이 동시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섬유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1년 5월에 개최된 PID 2021에는 참가업체 194개사, 관람객 14,572명 (26개국 온·오프라인 포함) 이 참가하여 16,940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 ITMA ASIA 2022 국고지원 선정

중국 상해 아시아 국제섬유기계전시회 (ITMA ASIA 2022 / 2022.11.20 ~ 11.24) 가 코트라, 경상북도, 대구시의 해외전시회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각 기관의 국고지원 방침에 따라 참가업체에게는 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이 지원된다. 2022년 참가 예정 업체는 대한제침, (주)세라트랙, 매일기계(주), 풍광기계(주), (주)삼화기계, (주)구일기계공업, 한국테크, (주)보림엘텍, (주)디에스니들, (주)삼성제침, 월드에프엘와이(주), 부광테크, 도세라(주), 일진에이테크(주), (주)이화글로벌이다.

무역 및 시장정보

■ 친환경 라이오셀 섬유 산업동향

(1) 친환경 라이오셀 (Lyocell) 섬유 산업동향

- 최근 친환경 섬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라이오셀 (Lyocell) 섬유의 시장 규모는 2021년 9,400억원에서 2027년 1조 5,446억원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오스트리아 렌징은 연산 30만톤 규모의 최대 라이오셀 섬유 생산능력을 갖추고 전 세계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Grecell, Hi-Tech Fiber Group 등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라이오셀 생산시설 증설 중
- 렌징은 목재 펄프 원료에 먼 폐기물 (Post-Consumer Cotton Waste) 을 30%까지 혼합하여 고품질 라이오셀 섬유를 제조하는 REFIBRA™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 장악력을 더욱 확대 중

(2) 시사점 및 정책제안

-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脫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과 친환경 소재에 대한 수요증가 등 섬유산업 관련 글로벌 수요시장 및 산업환경이 급변 중
- 기존 바이오매스 유래 레이온 섬유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제조자와 환경에 유해한 공해와 폐수가 다량 발생하는 문제로 라이오셀 섬유에 대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
- 셀룰로스계 섬유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시장 선도를 위한 프리미엄 소재 (친환경 공법을 사용한 바이오매스 유래 라이오셀 섬유 등) 개발에 대한 투자 필요
- 기 구축된 관련 연구역량 및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저피브릴화·이형단면사 제조기술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전량 수입에 의존 중인 의류·생활용 라이오셀 섬유의 국산화로 수입대체 및 고부가가치 신시장 진입 기대

※ 첨부된 「친환경 라이오셀 섬유 산업동향」 원본 참조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섬유기계 수출·입 실적 (2021년 1월 ~ 11월)

		수 출	수 입
금액 (천\$)		2,112,790	1,020,691
국 가 별	중 국	109,132	555,140
	미 국	1,207,483	13,538
	일 본	13,305	35,722
	베트남	99,309	210,953
	유럽(계)	126,571	79,859

☀ 산업계 소식

■ DYETEC 연구원 홍성무 제5대 원장 취임

홍성무 前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전무이사가 다이텍연구원 제5대 원장에 취임했다. 홍성무 신임 원장은 한국 섬유 산업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해온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35년 간 몸 담았으며, 타이어코드 및 자동차 에어백, 산업용 원사와 같은 산업 자재용 섬유 분야 전문가다. 특히,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후 1985년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입사 ▲스핀 본드 국산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개발팀장 ▲해외 주재원 (일본 오사카) ▲타이어코드 사업부장 ▲중국 남경공장 법인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업 1본부장 (전무이사) 을 역임했다.

홍 신임 원장은 「급변하는 섬유 및 염색 산업의 내·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원 조직과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ESG 경영 확립을 통해 연구원이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TIN 뉴스>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소식

■ 스프레딩된 탄소섬유의

섬유 배열 균제도 측정법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 추진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은 「6대 탄소소재 분야 국제, 국가 표준개발 및 보급사업」을 통해 다이텍연구원과 협업하여 스프레딩된 탄소섬유의 섬유 배열 균제도 측정법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섬유의 스프레딩 (Spreading) 공정은 멀티 롤러, 공기,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7mm 폭의 12K 탄소섬유를 최대 25mm 폭까지 편평하고 얇게 펼치는 초경량 소재 제조기술로, 스프레딩된 탄소섬유를 이용한 직물 제조시에 경·위사 간의 교차점 굴곡 (Crimp) 을 최소화하여 직물의 성능 향상 및 수지 함침성 향상 효과가 있다. 스프레딩된 탄소섬유의 배열 상태 (파단, 접힘, 정렬 불량, 불균일 등) 는 탄소 소재 및 최종 제품의 물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나 아직까지 탄소섬유의 배열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법과 품질 관리 메커니즘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섬유 배열 균제도 측정방법 개발을 통해 제품의 객관적인 품질 확인 및 성능 최적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발하고자 하는 섬유 배열 균제도 측정방법의 핵심기술은 와전류 센서를 이용하여 특정 영역에서 측정된 임피던스 값을 중량으로 환산하여 균제도를 수치화하는 기술로, 광학 센서를 이용한 탄소 섬유 표면의 면밀도로 균제도를 측정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다양한 폭과 두께를 갖는 탄소섬유 소재의 균제도 오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표준개발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국제 표준안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소 소재 품질관리 측면의 국제 표준화 선점을 통해 탄소 소재 산업기술의 기득권 확보와 국내 탄소 소재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성 향상이 기대된다.



섬유 배열 균제도 측정법의 활용 가능 분야

<출처 : 복합재융합연구센터 권혜인 선임연구원>